

불자들과 24시간 함께 숨쉰다

부산 용두산 미타원 시민선방·법당 개방



참선 정진을 원하는 대중에게 24시간 개방되고 있는 미타선원 시민 선방.

용두산 공원으로 오르는 길목에 위치한 미타선원(주지 하림)이 법당과 시민 선방을 24시간 개방하며 시민들을 위한 열린 수행도량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20평 규모의 시민선방을 새롭게 단장하고 법당 주변에 조경 불사를 마무리한 미타선원은 6월 22일 백중기도 입재와 함께 법당과 시민선방을 철야로 개방키로 결정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접근성이 좋은데다, 상가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상 주간에 시간을 허락되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것에 착안해 주지 하림 스님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도심 사찰 가운데 도량을 24시간 개방하는 곳은 흔치 않다. 새로운 시도에서 생길 수도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행분위기가 자리 잡히도록 하기 위해 21일 동안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지 하림 스님이 직접 참선을 지도한다. 미타선원 법당은 염불, 절, 다라니기도 등의 기도 공간으로, 시민선방은 참선 정진의 공간으로 개방한다.

상가 밀집지역 주민 신행 기회 넓혀 매일 철야 참선·염불·절 수행 지도 골목음악회·강좌 등 프로그램 다양

미타선원 시민선방이 24시간 개방된다고 해서 아무나 입방할 수는 없다. 수행 대중의 공부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아야 하므로 초심자의 경우 참선반 공부를 이수해야 하며, 수행경험자는 주지 스님 면담 후 입방이 허용된다. 입방증을 발급받은 후, 매시간 정각으로부터 10분 사이에만 출입할 수 있으며 50분 정진, 10분 포행을 원칙으로 한다. 30명에 한해 공부를 원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는다.

이 밖에도 미타선원은 주변 상가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3월, 미타선원 앞 공간에 봉안된 용두불은 오가는 관광객의 기념촬영 장소가 되었고, 불자들의

의 귀의처로 자리 잡으며 사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용두불 앞 가설무대에서 매일 '용두불 골목 음악회'를 열어 청소년과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타선원이 운영하는 '아름다운 가게 수자타'에서는 바른 먹거리 문화 보급을 위해 감로수(아채스프)와 유기농 농산물을 보급하고 있다.

불자들을 위한 변화를 거듭해온 미타선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와 화합에도 적극적이다.

최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무실을 개소했다. 이곳에서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용두산 공원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용두산 산사 음악회, 영산재 등도 매년 연례화 할 방침이다.

또한 단 한사람이 오더라도 매주 월요일에는 경전 강의를, 수요일에는 참선 지도

정보화대회 특별상·은상 수상 물론대복지관 강환진·구영찬

물운대복지관에 기쁜 소식이 걸렸다. 물론대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정보화 수강생인 강환진씨와 구영찬 씨가 2006년 장애인 정보화 한마당에 참가해 특별상과 은상을 수상한데 이어 행편이 어려워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내삼박이 민우(가명)가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강환진씨와 구영찬씨는 6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6년 장애인 정보화 한마당에서 이진우, 이근형 씨와 함께 참석해 '지체장애 정보검색부문'과 '시각장애 문서작성부문'에서 각각 특별상과 은상을 차지했다.

또한 뇌수종증으로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입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민우의 딱한 사정을 접한 물론대복지관은 민우의 치료비를 지원해 한국복지재단에서 300만

원의 치료비를 받아 언어치료와 통합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제12회 동래차밭골 다신제 차와 문학의 만남 등 행사

(사)한국다도협회 동래지구구장 양은순은 7월 3일 오후 2시 금정산 금어사 금강공원에서 제12회 동래차밭골 다신제를 봉행한다.

경봉 스님 추모 법회·장학금 전달 통도사, 정도·정암 스님 등 총 42명에



통도사 극락암(도감 명정)은 6월 22일 호국극락선원 무량수전에서 경봉 스님 열반 24주기를 맞아 추모법회(사진)를 봉행하고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함께 가졌다.

관공, 청혼 의식에 이어 경봉 문도회의 성수, 명정, 송암 스님 등의 헌다에 이어 종단 원로를 대표해 초우 스님, 산림 대중을 대표해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등의 헌향 의식이 이어졌다.

또한 선원대표, 비구니 스님 대표로 석남

사, 내원사 스님들이 헌향했으며 신도 대표 이대원행, 안석태 변호사 등이 경봉 스님을 추모했다.

성수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경봉 스님을 추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추모법회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경봉장학회(이사장 원명 스님)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정도, 정암 스님 등 박사과정 2명을 비롯 석사 2명, 학사 24명, 통도사 강원 8명, 극락선원, 보광선원, 서운암선원 등에 총 42명에게 2천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경봉장학회는 1980년 경봉 스님 생전에 성수, 명정, 송암 스님들의 교육을 후단 원로를 대표해 초우 스님, 산림 대중을 대표해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등의 헌향 의식이 이어졌다.

천미희 기자

'안티 지울' 네티즌 60명 수사의뢰

지울 스님과 내원사가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루머가 지난해 5월부터 '안티지울' 카페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울 스님은 목하 공사 중이었다'는 제목으로 10여장의 사진과 함께 편집된 이 글에는 "우연히 남자친구와 내원사에 갔다가 자연파괴 현장을 보았다"며 "지울 스님이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 나무를 베고,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권리를 위해 교량을 짓는다"는 내용의 글을 적고 있다.

이 글과 사진들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네티즌들에 의해 재편집돼 지울 스님의 기사가 올려지는 사이트마다 이 같은 사진과 내용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산시 교량공사 장면 악의적 댓글로 유포

그러나 이 글과 사진은 모두 지울 스님이나 내원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양산시가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량 공사를 하는 장면이거나 소나무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베어낸 흔적이어서 안티지울의 악의적인 댓글달기인 것으로 판명났다. 최근 대법원에서 도롱뇽 소송이 각각 내용의 기사 및 예도 이 사진과 글이 댓글로 달렸고 이 댓글은 무려 3만 명이 검색했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자 지울 스님과 천성산대적위는 19일 부산지방경찰청에 악성 댓글을 달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악의적으로 퍼뜨린 네티즌 6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 요청서에는 수사요청 배경을 "한 개인이나 사람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위상과 1000만 불자들의 신심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며 더 나아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일하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울 스님은 "악의적인 댓글이 달려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이 진실인 듯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곧바로 IP 추적 등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천미희 기자

6·25 맞아 호국영령 합동 위령제



부산종교인평화회의의 대표 정각은 6월 23일 UN 기념공원 추모관에서 '6·25 56주년 기념 호국영령 합동 위령제(사진)를 봉행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전통군경의 영혼을 위로하는 추모행사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기독교, 불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민족종교협의회 등의 종교지도자와 일반 신도가 대거 참석했다.

정각 스님(미륵사 주지)은 "이 나라를 위해 희생된 많은 분들의 넋을 기리는 일은 종교나 이념을 넘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일"이라며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했다"라며 "부산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서 가신 분들의 뜻을 잇고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기원의 마음을 모아 나가는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동래차밭골 기념비 제막식 및 능소화 축제가 함께 열리는 차밭골 다신제는 1부 행사로 동래차밭골 다신제에 이어 다시, 축시 낭송, 축하 공연 등의 순서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금어사 주지 월강 스님, 한국다도협회 정영호 회장, 공동선 실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정영 스님, 부산차인연합회 허충순 회장 등 스님들과 다인들이 참석한다.

이 밖에도 가회규사다례시연, 부산여류문인협회, 부산시인연합회, 부산불교문인협회의 회원들이 시낭송, 한글국악원 원장 조철현(천주 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보존) 전수 인간문화재의 대금산조 등으로 다신

제의 분위기를 더하게 된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다도협회 동래지구는 매년 동래차밭골 다신제를 열고 2005년부터는 '동래차밭골'이라는 동인지 등을 통해 차와 문학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 (051)555-6072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前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 인도성지순례기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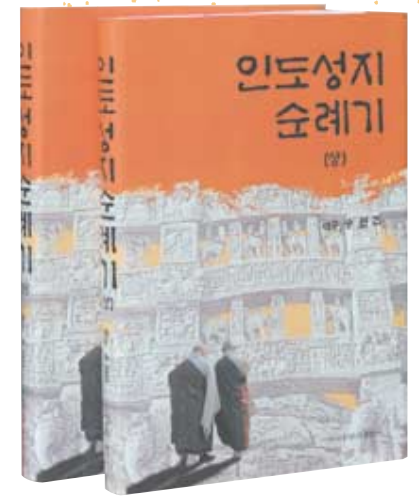
종교·철학의 나라이며 세계 5대문명 발생지의 하나인 인도를 여행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2005년 4월 4일부터 31일까지 인도의 불교 8대 성지와 그 외 불교 유적지와 간디선생 기념유적지 등을 두루두루 순례하고 돌아 왔습니다. 필자는 이 순례기에 1985년 2월에 인도를 순례한 느낌도 아울러 적었습니다. 인도 문화유적지와 불교성지를 순례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서 감동을 받았으며, 부처님의 심오하고 훌륭한 사상에 대하여 더욱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신 후 수자타가 올린 유미죽을 드시고 원기를 회복하셨습니다. 고행과 육체적 안일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인 방법으로 보리수 아래서 옹몽정진하여 새벽별을 보는 순간에 그것이 당시 자신의 지각(知覺)과 동시에 존재함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거나 법을 구한다면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정(有情)·무정(無情)이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동일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인도 성지순례를 통하여 일찍이 부처님께서 깨달아 제시하신 공·해탈·연기·중도·지혜·자비·평등·상생·평화사상이 인류를 정복(淨福)의 길로 구제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라는 것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은 불교 성지뿐만 아니라 간디성지의 유적지를 거의 답사하고 또 불교 유적지는 가는 곳마다 부처님 경전과 연관을 지어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며 모든 존재와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고 한 생명이라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에 입각하여 대승보살도의 정신으로 항상 내 마음을 비우고 자비(慈悲)·사우랑심(四無量心)과 육바라밀(六波羅密)을 실천하시기 바라며 마하타가 간디성자의 비폭력 평화사상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머릿말 중에서

태공 송월주 스님

姓名: 宋昭燮
 法號: 太空
 法名: 月珠
 本寺: 金山寺(全北 金堤市 金山面 金山里)
 1958년 화암사에서 금오선사로부터 비구계 수지
 1935. 4. 16(음 2, 25)
 전북 정주시 산외면 정암리 979에서 宋榮許 公과 崔宗乙 女史의 5男 4女 申 5男으로 出生



신국판 / 울칼라 / 328쪽(상) 344쪽(하) / 각권 값25,000원(상·하 50,000원)
 ※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중!!